



오아시스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angnam Center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VOLUNTEERS OASIS _ 제 4호

2012

2월

나눔의
기쁨이
샘솟는~



발행처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2012년 2월 25일 발행 통권 제 4호

TEL 02.2112.5700 / FAX 02.2112.5635

healthcare@snuh.org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angnam Center Volunteers*

Oasis



CONTENTS

2012. 2

04	인사말
05	축사
06	오아시스 되돌아보기
10	안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16	강원도 영월군 순회 무료진료
20	강남구 순회 무료진료
24	독거노인 목욕봉사
26	오아시스 2011년 송년회
27	2012년 오아시스 봉사일정
28	도움을 주신 분들
29	후원회 예우
30	강남센터의 얼굴들

사회봉사단 오아시스의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2003년 개원 이래 건강증진을 위한 의로서비스 영역에서 독보적 위치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진단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임상예방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006년 이후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를 통해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의 핵심 가치인 국민건강증진, 사회공헌과 의미를 같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봉사단 오아시스의 봉사 활동은 강남센터가 받아왔던 관심과 애정을 그 일부라도 사회에 되돌려주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환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의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어나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농촌 순회 무료진료, 외국인 노동자 진료, 목욕 봉사, 건강 강좌 등을 열정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남센터에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원장 조 상 현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한 해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교직원 모두는 건강증진 의료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열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로서의 위상도 높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글로벌 리더란 단지 전문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리더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자원봉사(volunteer)라는 용어는 인간의 자유 의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지를 뜻하는 라틴어 'voluntas'가 그 어원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 활동 또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을 'volunteer'라고 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오아시스 단원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단원들을 포함해 항상 따뜻하게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강남센터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셨던 외부 인사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가치를 바탕으로 저희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단 오아시스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박수와 격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단장 신 찬 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참여로 시작된 인연으로 이렇게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소식지 4호 발간도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아시스 봉사단이 2006년 창단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과 의료 소외 계층을 먼저 찾아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크게 기여하심에 평소 깊은 감동을 느껴 왔습니다. 그야말로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가 가지고 있는 의료경험과 능력,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는 실천이야말로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만나는 귀한 샘물인 오아시스처럼 소외 계층에게는 삶의 희망이고, 의료봉사 분야에는 봉사활동의 독보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아시스 봉사단처럼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흔쾌히 기부하심으로써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삶의 원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아시스 봉사단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한 인연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시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조상현 원장님을 비롯한 오아시스 봉사단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줄고 있어 문제입니다. 지난해 지구촌을 휩쓴 ‘점령하라(occupy)’ 시위도 대부분 월 스트리트, 런던, 로마, 아테네 등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복은 ‘함께’, ‘더불어’ 정신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300여 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하면서 처음으로 해외봉사활동을 내 보냈습니다. 파라과이, 과테말라,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의 현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집수리도 해주고 돈사도 지어주고 가난한 어부를 위해 배도 만들어 주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해외봉사를 다녀온 예비 사무관들은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의 활동은 남과 다른 전문봉사 활동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도 좋은 말이지만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늘은 나를 도와준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윤 은 기

오아시스란?

오아시스¹는 사막 가운데서 샘이 솟고 초목이 자라는 곳으로, 삶의 위안이 되는 사물이나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²는 오아시스¹의 본래 의미를 본받아 2006년 창단되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료 서비스에 소외된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기적인 의료봉사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³ 외국인주민센터, 강원도 영월, 강남구 등의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팀의 이동장비 차량을 이용하여 초음파, X-ray, 혈액 검사와 같은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²는 단순히 질병 조기발견에 그치지 않고, 예방접종을 비롯한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후원사업을 위해 진료팀, 검사팀, 진료연계팀, 약무팀, 홍보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소식지 발간이야기

오아시스의 활동을 담은
소식지가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의 활동을 담은 소식지가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의 소식지는 1년간의 오아시스 활동을 돌아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봉사활동에 대한 다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소식지를 통해 오아시스의 활동을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고 봉사를 통해 느끼는 생활 속의 기쁨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오아시스 소식지 창간호는 2008년 12월에 처음 제작되어 사막 한가운데 야자수와 함께 있는 오아시스를 통해 창단 이념을 담았습니다. 오아시스 소식지 2호는 2010년 2월에 <더불어 함께>를 주제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였던 홍보대사 정보석님과 봉사단원들의 함께하는 모습이 담긴 표지를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2009년의 봉사활동>을 나타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도약>을 주제로 제 3호가 발간되었고, 강남구 순회 무료진료, 예방접종 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들을 포함한 다양화된 2010년 봉사활동을 보여줬습니다. 2011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후원인이 함께 해주신 덕택에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2012년 2월 오아시스 소식지 4호가 발간됩니다.



[2008년 제 1호]
- 오아시스



[2010년 제 2호]
- 더불어 함께



[2011년 제 3호]
- 도약



[2012년 제 4호]
- 나눔의 기쁨

오아시스 연혁

2006

- 10.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창단

2007

- 04.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협력, 부천 외국인 근로자의 집 진료
- 05.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인 라파엘 클리닉과 업무협약 체결
- 06. 강원도 영월군 순회 무료진료 시작
- 10.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강좌 시작
- 10. 강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 체결

2008

- 02. 독거노인을 위한 목욕봉사 시작
- 07.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산 무료진료 시작
- 08. 오아시스 홈페이지 제작
- 12. 오아시스 소식지 창간호 발간

2009

- 01. 오아시스 강남센터 내 공식조직화
- 01.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조상현 초대 단장 취임
- 06.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영월군-(주)유라클 U-healthcare 협약 체결
- 11. 강남구 디딤돌 사업 참가

2010

- 02. 오아시스 소식지 2호 발간
- 06.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신찬수 신임 단장 취임
- 07. 강남구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감사패 수상
- 12.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안산시 협약체결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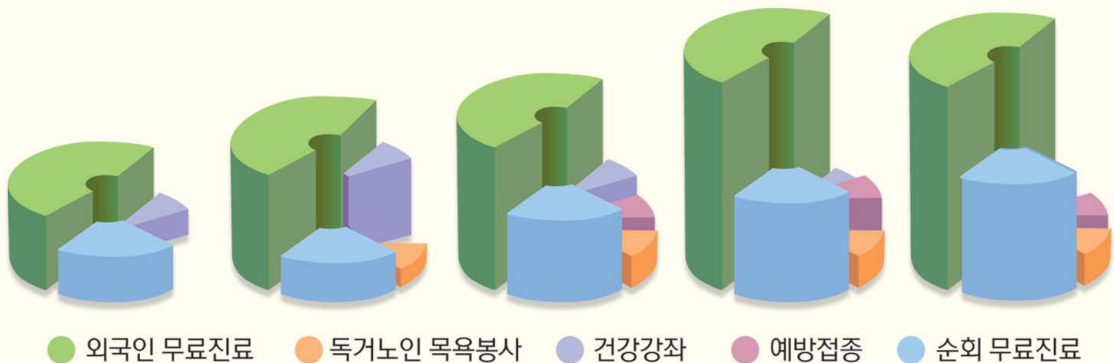
- 02. 오아시스 소식지 3호 발간

2012

- 01.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김주성 신임 단장 취임
- 02. 오아시스 소식지 4호 발간

오아시스의 2011년 이야기.

오아시스는 지난 2011년에도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조기 질병 진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안산 외국인 근로자, 영월군 주민 및 강남구 생활보호대상자들 모두에게 흉부 X-ray,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문진과 신체검진을 통해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심전도, 초음파, 방사선 촬영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거노인 목욕봉사	-	60	100	90	90
건강강좌	150	600	250	200	-
예방접종	-	-	177	490	300
순회 무료진료	235	180	540	690	700
외국인 무료진료	556	900	1,800	3,000	3,000

(연인원 기준, 단위: 명)

특히 2010년부터는 진료연계가 활성화되어 2011년에는 총 34명이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컴퓨터 촬영(CT), 운동부하심전도, 심장초음파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았고, 유소견이 확인된 2명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영월 주민께 서울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주선해 드렸으며, 안산에서는 발육 지연으로 인한 변실금 및 요실금 증상이 있는 7살 몽골 어린이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연계하여 바이오피드백 요법을 비롯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한동안 중단되었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건강강좌를 재개합니다. 2012년 한 해도 오아시스는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건강관리의 동반자로서 의료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안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Medical services for
foreign worker*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2008년 7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2008년 7월부터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경기도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25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동 의료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X-ray, 혈액검사, 초음파, 심전도, 자궁경부암검사 등을 포함한 각종 검사와 진료 및 약 처방, 통증클리닉, 운동처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산진료 활동에는 40~50여 명에 이르는 강남센터 교직원들, 고된 육체적 노동을 지속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실제적 도움을 주시는 라끄리닉드 파리의원의 운동처방사들, 환자들이 모국어로 자신의 아픈 부분을 표현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는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의 통역사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원활한 진료 활동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는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 소견을 보인 근로자들이 단순히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의 협력 하에 병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7세 환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밀폐항문을 가지고 있어 아이의 어머니인 외국인 근로자가 일일 근로를 전전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의 도움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검사와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9월에는 심전도검사서서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강남센터에서 심장 관련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꾸준한 치료와 운동 및 생활습관 관리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 안산 진료 채혈실
2. 치과 진료실의 김화자 교수님
3. 세심하게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오승원 교수님
4. 안산 진료에 참여한 강남센터 직원들, 다함께 아자아자!
5. X-ray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최수연 교수님
6. 혈액검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
7. 꼼꼼하게 증상을 물어보시는 송지현 교수님
8. 채혈 검사실의 김기정 선생님
9. 통증 치료 중인 오승원 교수님



안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 봉사 후기

봉사 후기 [1]

너 이번 주말에 안산 가니?

너 이번 주말에 봉사 가니?

봉사? 아~! 안산에 가는 거...

나에게 봉사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쑥스럽다.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어 사전에 ‘봉사’를 검색해 본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

땡!! 나는 남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엄청나게 돌보고 약간의 움직임을 같이 할 뿐이다. 그래서, 난 봉사하러 간다고 하기가 정말 부끄럽다. 그럼에도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어떡하느냐며 자꾸만 고맙다고 인사하셨던 아주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보냐며 괜한 핀잔처럼 말을 걸어오는 아저씨 얼굴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약이 잘 낫는다고 하얗게 웃던 많은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렇다!! 이렇게 많은 얼굴이 떠오르는 걸 보면, 난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매월 첫째 일요일 아침 마침 약속이 없는 나는 또 안산을 향해가는 버스를 탄다. 같이 일하는 동료와 있고, 기꺼이 함께 해주는 그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는 많은 분에게 달려간다. 이제 질문을 바꿔 스스로 대답해본다.

너 이번 주말에 안산 가니? 응, 나 이번 주말에 안산에 가. 다른 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뵙고, 안산 외국인 노동자들도 만나서 사는 얘기도 듣고 친하게 지내려고... 같이 갈래?

김정민 (간호사)



봉사 후기 [2]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이
궁금해지는 날이 되다!!

처음 엄마의 권유로 가게 된 안산 외국인 의료봉사, 나에게 참 어색하기만 했던 첫 봉사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권유가 아닌 저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가는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던 날에는, '일요일 날 왜 쉬지 못하고 이걸 가야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봉사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땐 외국인분들의 소변검사를 해주었는데, 소변 검사 용지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면서 소변을 묻혀 오도록 말해주는 것이 제 활동이었습니다. 그 뒤 외국인 근로자들 안내 담당 등을 맡게 되었고, 차츰 많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과도 봉사를 가면서, 안면이 없던 또래와도 새로운 친분을 쌓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먼저 봉사를 시작한 경험을 살려서 친구들에게 봉사를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했고요. 어느덧 일 년이 지나면서 봉사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최근에 갔던 외국인 근로자봉사에서는, 어느 외국인이 우리에게 와서 영어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긴장을 했지만 우리가 배운 영어를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끝낸 후 그 외국인한테 영어 잘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네요. 우리는 통역을 한 후 기분 좋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안산 외국인 진료센터에서의 봉사는 보람되고 활기찬 재미를 경험하게 해준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부끄럽고 짜증 났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기분도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먼저 '봉사 갈래?'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의 기회를 허락해 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아니,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가겠노라고 제 마음속의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최형석 (휘문고 2학년)



봉사 후기 [3]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작년 11월 6일(일), 오아시스 자원봉사를 위해 버스에 올랐을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구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통역해주고 서류작성을 도와준 경험이 있다고는 해도 의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제가 의료봉사에 나섰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부터 모든 분이 처음 보는 저에게 친절히 대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산

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점심식사를 하고 나니 걱정은 사라지고 빨리 일을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닭은 또 어찌나 맛있었는지요!

저는 약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방전에 들어갈 약을 세거나 약 찾는 것을 도와드리 는 단순한 일을 하였습니다. 시간도 돈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강문제를 진단해 주고 약을 처방해주는 오아시스는 정말 사막에서 만난 시원한 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오아시스는 정해진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갈증을 풀어 준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우리 오아시스 대원들의 너그럽고 자 상한 자세입니다. 약을 받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약을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더라도 우리 오아시스 대원 들은 항상 웃고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 오 아시스 대원들이 남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진정 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자가 갈기갈기 찢어버린 세계지도를 할아버지가 다시 맞춰 붙이려다 포기합니다. 잠시 후 손자가 세계지도를 테이프로 다시 잘 붙여 가져 옵니다. 놀라는 할아버지에게 어린 손자는 씩 웃으며 지도 뒷면에 그린 자신의 낙서를 보여 줍니다. 자신의 낙서를 보고 맞춘 것이

지요. 오아시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형클어진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어린이의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박지원 (한국외국인학교 11학년)



Thank you



감사의 글

희망이 가득한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아시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부터 우리 안산시와 인연을 맺어오면서,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원곡보건지소를 방문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무료진료와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훌륭한 행동으로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변해가는 선두에 우리 안산시가 있으며, 우리 시는 다문화 국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60년 만에 돌아왔다는 흑룡의 해인 2012년 '희망'의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비상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소장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감사의 편지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근로자입니다. 낯선 타향 땅에서 일하면서 아파도 비용 때문에 병원이란 생각조차 감히 못 합니다. 다행히도 단원구 원곡동 보건소에서 외국인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진료가 있기에 나의 건강이 보장되어 안심입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인종 차별 두지 않고 친절하고 자상함으로 보살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아름다운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의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한 해에 선생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김영애 (중국)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근로자입니다.
낯선 타향 땅에서 일하면서 아파도 비용 때문에
병원이란 생각조차 감히 못 합니다.
다행히도 단원구 원곡동 보건소에서 외국인을 위해 한 달
에 한번씩 무료진료가 있기에 나의 건강이 보장되어
안심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의 인종차별 두지 않고 친절
하고 자상함으로 보살핌에 너무 감사 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아름다운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의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한 해에 선생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중국 김영애



강원도 영월군 순회 무료진료

*Medical services
at Yeongwol*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2007년 6월부터
강원도 영월군 주민들을 위한 무료진료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

●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지난 2011년 4월 22일(금)~23일(토)과 8월 27일(토)~28일(일) 두 차례에 걸쳐 영월군 수주면과 중동면을 각각 방문하여 순회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영월군 각지의 어르신들이 오아시스가 자리 잡은 진료지를 방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오아시스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수주면, 중동면 뿐 아니라 상동읍, 문산리와 같은 인근 마을에서도 진료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총 400명의 영월군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상현 원장과 신찬수 단장을 비롯하여 강남센터 임직원 80여 명은 이동식 의료장비 차량을 이끌고 X-ray, 심전도, 초음파,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영월까지 가는 길은 멀지만, 꼭두새벽부터 줄 서서 저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잊곤 합니다.

특히, 4월에 시행한 순회 무료진료 때에는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해 드렸습니다. 쌀쌀한 산골 날씨에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1. 어르신의 불편사항을 체크하고 계신 신찬수 단장님
2. 어르신의 치아를 구석구석 체크해주는 이은희 교수님
3. 영월군수님께 감사패를 전달받은 조상현 원장님
4. 진료 전 어르신의 혈압측정과 불편사항을 체크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5. 친절한 상담을 해주시는 이소희 교수님
6.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7.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방문 진료를 담당해주신 박효은 교수님

이번 순회 무료진료에는 교직원 가족들과 서울대학교 의대·간호대 가톨릭 학생회(CaSA) 학생들도 참여하여 보다 풍성한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월군 순회 무료진료는 지난 2007년 10월 체결한 강원도 영월군과의 자매결연에 의한 것으로 매년 2회 강남센터 교직원들이 방문하여 혈액검사, 초음파, 흉부 촬영 및 기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월 진료 후에도 일부 중요한 이상 소견을 보인 주민에게는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를 비롯한 추후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월군 순회 무료진료 / 봉사 후기

봉사 후기

봉사의 즐거움과 의미를 아이들이 알게 되기를 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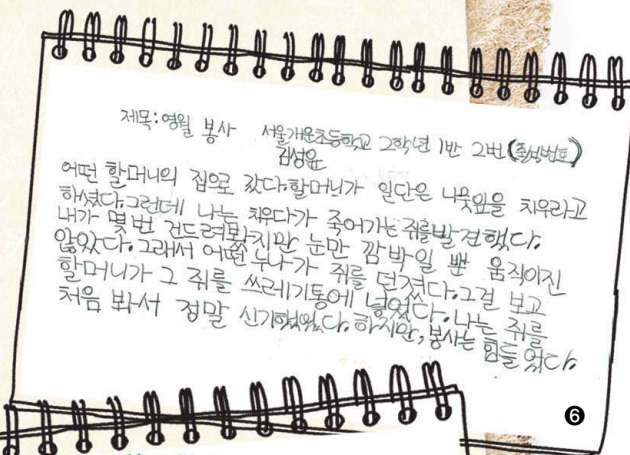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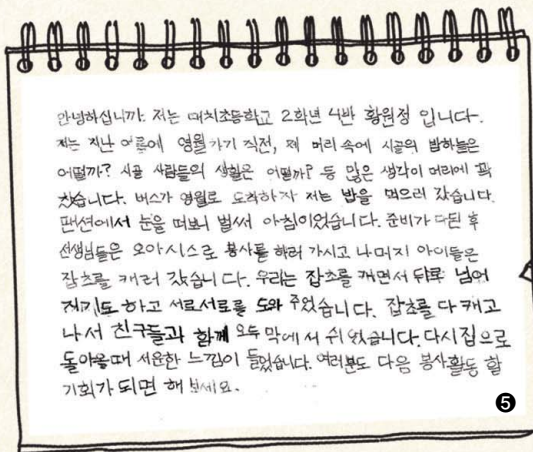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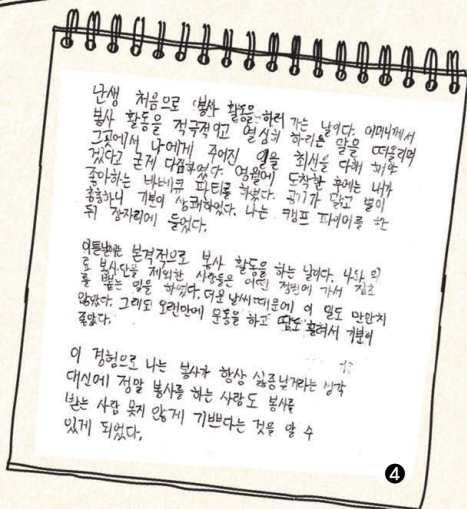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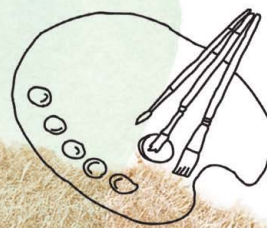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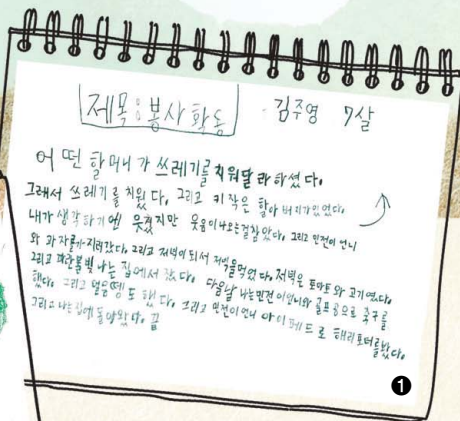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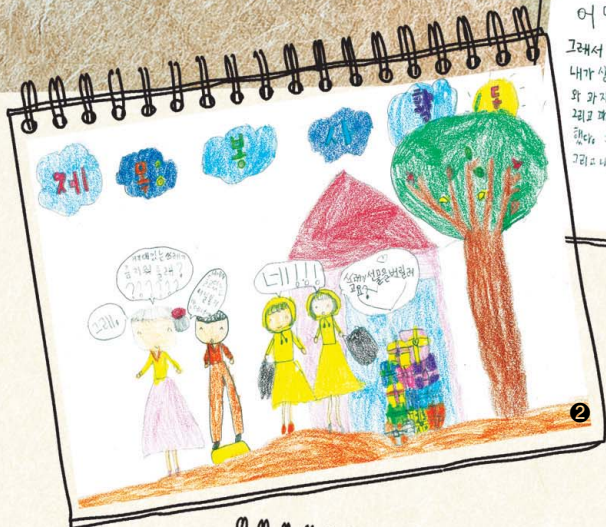
고백하건대 편안한 주말을 갈구하는 제게 있어 '봉사'는 속물근성을 자극하는 불편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지이더라도 부모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의무감에 두 아이 손을 꼬옥 잡고 늦여름 진료봉사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도 아직 만끽하지 못했던 봉사의 즐거움과 의미를 아이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별이 쏟아질 듯한 영월의 밤하늘, 상쾌한 산 공기와 고소한 바비큐 냄새의 조합, 동료 간의 정겨운 속삭임은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치 모닥불 주위를 인디언 소년처럼 갹충갹충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그림자가 흐뭇하기만 합니다. 봉사하러 왔는데 이리 낭만적이어도 되는 건지요. 다음 날 늦잠꾸러기들을 깨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통통 불은 컵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동네주민의 환대에 감사했고, 어르신들께서 예상보다 적게 오신 것 같아 밥값을 못했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진료봉사에 참여하는 강남센터 식구들의 젊은 활기와 생기발랄한 표정에 저 역시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땀과 물이 뒤범벅이 된 아이들끼리 금세 친해진 듯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 긍지를 느낍니다.

짧은 반나절의 진료를 마치고 보너스로 난생처음 래프팅을 하면서, 꼬마 개구쟁이들이 노를 가지고 물싸움하는 통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애국가 화면에서 봤던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만 하루 동안의 충만한 체험에 흥분된 아이들은 벌써 다음 봉사 일정을 기약합니다. 집으로 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진정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교훈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이번 기회로 조금 성장한 것 같고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무럭무럭 큰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다음 봉사는 '래프팅' '캠핑파이어' 라는 조건 때문이 아닌, 봉사 자체에 대해 무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되도록 말이지요.

정수진 (강남센터 내과)





- ① ② 김주영 (티티티유치원)
- ③ 정지윤 (서울여대부속유치원)
- ④ 황윤희 (대치초등학교 4학년)
- ⑤ 황원정 (대치초등학교 2학년)
- ⑥ ⑦ 김성윤 (개운초등학교 2학년)



강남구 순회 무료진료

*Medical services
at Gangnam-gu*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2007년 6월부터
강남구 주민들을 위한 무료진료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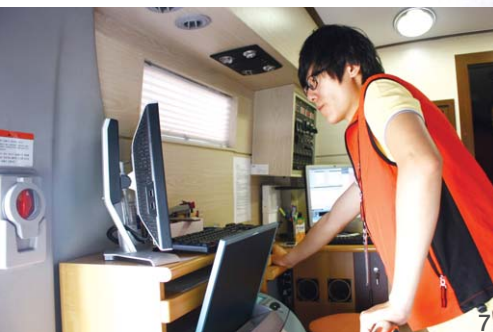
●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올해로 2회째 접어든 '강남구 디딤돌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1일(토), 강남구 수서중학교에서 순회 무료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무료진료는 디딤돌 사업의 강남구 대표 거점기관인 능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강남구 총 13개의 복지관의 협조 아래 기초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미리 신청을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강남센터 교직원 60명과 직원 가족, 복지관 및 구청 직원 20명 등이 함께 하였으며, 약 300명의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기질병 진단과 질병예방,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 아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1. 어르신들의 불편증상을 귀담아들어 주시는 조상현 원장님
2. 어르신들의 목 통증을 싹 날려줄 통증클리닉의 권혁태 교수님과 김민숙 선생님
3. 검사 순서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4. 진료 전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문진하는 모습
5. 흉부촬영 순서를 안내해주는 모습
6. 아름다운 봉사를 펼친 강남센터 직원들
7. 이동장비 차량에서 X-ray 사진을 확인하는 모습
8. 진료실 풍경
9. 진료 후 단체사진 촬영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방문한 환자분들께 혈압 체크, 혈당 검사 등을 포함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X-ray 촬영,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했으며 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안과, 통증클리닉, 치과 등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에는 병원에서 개인별 진료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200명의 어르신에게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외부 진료연계가 필요한 10명의 어르신에게, 강남센터에서 흉부 CT,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순회 무료진료에는 오아시스 외에도 '푸르덴셜 생명보험', '이마트(역삼점)', 수서중학교, 비전학교가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Hi Seoul
SOUL OF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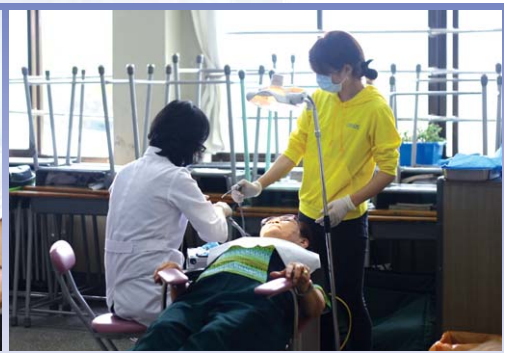


서울시복지재단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나누는 이웃, 희망찬 서울공동체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은 지역 내의 학원, 병·의원, 기업체, 상점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물품, 서비스)에 참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을 받은 이웃은 상점을 칭찬하고 홍보해 지역사회를 '나눔 공동체'로 만드는 기부문화사업입니다. 현재 강남구와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외 거점기관(복지관) 등 13곳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감사패 전달

● 2011년 12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봉사단 오아시스는 2009년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협약 이후 저소득주민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등의 공을 인정받아,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조상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원장은 “흔히 ‘강남구’ 하면 잘사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실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선행 봉사가 단발에 그칠 게 아니라 매년 강남구와 협조해서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강남 디딤돌 사업 감사패 전달을 발판삼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앞으로도 강남구의 ‘복지 의료 허브’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의 편지

성모자애복지관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 감사하다는 인사가 늦었네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게 되어 감사드려요. 그리고 비싸다고 들었는데 폐렴구균 예방주사도 무료로 놓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가 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강남구 수서동)

봉사 후기 [1]

마음까지 덩으로 건강해졌어요 ^^

2011년 6월 11일(토) 오전 8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는 아침부터 수서중학교 앞이 매우 분주하다.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에서 강남구 내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매우 무덥고 이른 시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350명의 어르신, 장애인분들을 위해 열심히 분주히 움직이는 봉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름처럼 사막의 오아시스같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한줄기 단비 같은 분들이구나 생각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 선생님들이 친절까지 하시고... 이리 저리 안내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니 우리 어르신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음이 참으로 불편하실 텐데 그저 좋으신 것 같았다.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마음까지 덩으로 건강해질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했는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했을 것이다. 오아시스 같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오현정 사회복지사 (청음회관 복지관)

봉사 후기 [2]

신혼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



주말 아침. 주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에게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결혼한 지 한 달 남짓 된 신혼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더 큰 행복을 위해 주말 아침의 작은 행복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엔 저보다 늦게까지 자던 아내도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나가자며 재촉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조금 더 자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섭니다.

오아시스와 인연을 맺은 건, 2008년 가을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병원에서 봉사활동 사진을 남겨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며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딱히 하는 일도 없으니 데이트하러 간다 생각하고 흔쾌히 안산 봉사활동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정신 없이 일하시는 가운데, 쉬엄쉬엄 한두 장씩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게 전부인지라 괜히 방해만 되는 게 아닌가 죄송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지만, 딱히 잘 찍은 사진도 아닌데 사진 잘 나왔다고 다들 칭찬해주신 덕분에 그 뒤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무료진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산, 영월처럼 먼 곳만 다녔지, 이런 가까운 곳, 특히 강남구에서 의료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왠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며 봉사 장소인 수서중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 접수 천막 아래에는 많은 어르신이 모여 계십니다.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젊은 외국인이 많은 안산 진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어느새 진료가 시작되고, 저는 진료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각각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단원 분들의 모습을 뷰파인더에 담기 시작합니다.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웃으며 어르신들을 맞는 오아시스 여러분의 모습, 진료받으면서 감사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카메라 뒤에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카메라 안에는 행복이 쌓여갑니다.

신재우



독거노인 목욕봉사

*Bath services
for the elders*

마침내
과감합니다

정신하고 착하고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 하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는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홀수 달 (3, 5, 7, 9, 11월) 토요일 아침에 20명의 직원이 종로구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매 회 20여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목욕물로 구석구석 씻겨 드린 후 새 속옷을 입혀 드렸습니다.





낮익은 어르신들은 멀리서부터 직원들을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시고, 일이 서투른 직원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느라 그만 어르신 손이 물에 통통 불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부끄럽다며 직접 혼자 하겠다고 하셔서, 어르신 손이 닿기 어려운 등과 발을 짹짹 밀어 드렸더니 몇 번이나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가십니다.

비록 목욕탕의 열기로 머리가 부스스해지고 옷은 다 젖게 되지만, 목욕 후에 반짝반짝 빛나는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보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서 벅찬 뿌듯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는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말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들과 늦잠의 유혹을 떨치고 나와 주신 강남센터 교직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목욕후 말끔해지신 모습
2. 목욕봉사를 모두 마치고서 단체 사진 컷
3. 행여나 감기 드실까 꼼꼼히 말려드리는 모습
4. 한결 환해지신 모습으로 찰칵
5. 드라이기 바람과 같은 시원한 웃음
6. 목욕 직후 조금은 젖은 모습으로
7. 예쁜 미소로 다같이 차~즈

안프로도
부락르렁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모두 왜 내세는
산모야며 보고 싶어 하시네요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아시스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로 삭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 것처럼
깨끗하고 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랑한 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asis 오아시스 2011년 송년회



오아시스의 사회봉사활동은 비단 강남센터 직원들만의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의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수) 오후 6시 오아시스는 강남센터 39층 파트너스라운지에 2011년 오아시스 사회봉사활동을 도와주신 귀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강남구청, 영월군청,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주)영광개발 관계자들과 오아시스 운영진 및 봉사참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한 해 동안의 오아시스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남구청장님과 영월부군수님의 축사에 이어 안산시장님의 영상 축사가 상영되었으며, 2011년 오아시스의 활동을 보여준 동영상들을 모두가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강남구청과 영월군에서는 순회진료를 비롯한 강남센터의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2012

오아시스 봉사일정

OA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ANGNAM CENTER VOLUNTEERS

구 분		내 용	장 소
1월	8일 (월)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2월	5일 (월)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3월	4일 (월)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20일 (화)	건강강좌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4일 (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4월	1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13일 (금) ~ 14일 (토)	순회 무료진료	강원도 영월군
5월	12일 (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3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6월	3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19일 (화)	건강강좌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3일 (토)	강남구 순회 무료진료	강남구 지정 복지관
7월	1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28일 (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8월	5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24일 (금) ~ 25일 (토)	순회 무료진료	강원도 영월군
9월	2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18일 (화)	건강강좌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2일 (일)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0월	7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11월	4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24일 (토)	독거노인 목욕봉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2월	2일 (일)	외국인 무료진료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 2012년에도 의사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계속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Supporters

● 재단법인 권정순 재단

(재)권정순 재단은 소외된 이웃사랑과 장학사업에 평생에 바친 故 권정순 여사(동해금속 서동해 회장의 부인)의 뜻을 기려 저소득 빈곤계층 지원과 청소년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 15일(토) 설립된 비영리법인(북구 호계동 소재)입니다. (재)권정순 재단은 지난해 저소득 청소년 22명에게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사업을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1년 5월 16일(월) 강남센터 오아시스의 순회진료 봉사활동에 보탬을 주고자 약제비 2천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아시스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주)영광개발 이동우 대표

(주)영광개발 이동우 대표는 7월 13일(수)과 10월 14일(금) 두 차례에 걸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에 각 1천만원의 지원기금을 기부하였습니다. (주)영광개발은 수출입 사업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평소 강남센터에서 건강관리를 받아오던 이동우 대표는 오아시스의 활동 소식을 접한 뒤 사회의 취약 계층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의사를 밝히며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강남센터는 이동우 대표이사의 뜻에 따라 사회봉사단의약품 구입비, 운영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봉사 등에 전달받은 소중한 기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범진케이터링(주) 박홍순 대표

범진케이터링(주) 박홍순 대표가 지난 2011년 10월 31일(월)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의 순회진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를 기증했습니다. 강남센터 오아시스는 그동안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의 이동형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안산, 영월, 강남구를 비롯한 주민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한 대밖에 없는 탓에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검사 일정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홍순 대표의 의료기기 기증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회 예우

Preferential Donor

- 도움을 주시거나 후원하실 분을 모십니다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책자 및 건물벽면 회원성명 영구보존		●	●	●	●	●	●	●
디지털 액자							●	●
감사장 증정		●						
감사패 증정(5천만원 이상 흉상감사패)			●	●	●	●	●	●
만찬 초청(발전후원의 밤)			●	●	●	●	●	●
차량출입증 교부(무료주차)	본인(배우자 포함)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직계가족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진료비감면혜택 선택진료비 100% (연간 3백만원 한도)	본인(배우자 포함)			3년	10년	평생	평생	평생
	직계가족				5년	10년	평생	평생
종합건강검진(2인 기준) 본인 및 배우자(1회 100만원 한도)					1년(2매)	3년(6매)	5년(10매)	평생
진료편의	외래예약, 진료, 입원, 응급실, 장례식장		●	●	●	●	●	●
	의전서비스-VIP실 이용				●	●	●	●
	차량편의(구급차, 승용차)						●	●
병원 간행물 발송		●	●	●	●	●	●	●
병원 기념품 제공			●	●	●	●	●	●
기관장 초청 간담회						●	●	●

*법인 또는 단체는 대표자(배우자)에게 예우

- 후원 회원이 되시려면

1. 우리 모두가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3.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로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5.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6.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후원금 전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서울대학교병원은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관입니다.
9.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우송해 드립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후원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

TEL 02)2112-5700 FAX)2112-5635

URL <http://healthcare.snuh.org> Email healthcare@snuh.org

강남센터의 얼굴들

Gangnam Center
Volunteers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유익은 영원하게?"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는 오아시스 봉사단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가정**

나폴리 정...
배우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특히 영화사의 아름다운
직원들의 정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장희용 -**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회원입니다!! **- 장혜영 -**

나눔과 배움의 기쁨이 있는
오아시스 화이팅!!!
- 이영주 -

힘들지만 작게나마
2012 겨울이 여러 사람에
적용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정말, 2012 겨울을 보내는
OASIS 회원으로 참여
화이팅!! **- 가보라 -**

봉사하는 기본 자세
드립니다.
작은 친절
주기에 감사해요.
사랑해요. 오아시스♡
- 이영애 -

오아시스 봉사단은 강남센터의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봉사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교는 배움만이 좋은 것이니
기원합니다. 2013년도 화이팅!!
- 김희정 -

봉사하면서 따뜻한 마음이
감동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에 봉사합니다!!
- 최수진 -

어려운 일이 필요한 분을
찾아갔다가 도리어
변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오아시스
2012년에도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 건희영 -**

그 많은 봉사활동 속에서
깨닫게 되는
OASIS 대원들
정말 감사해요!
- 이영민 -

정말 더 커져 가는
봉사단 안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기쁨도
커져갈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앞으로 2012년에도
반드시 사랑합니다!!
- 양은정 -

참여하는 사랑입니다.
항상 힘을 주는 '오아시스'!
평범한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영광입니다!!
- 김희영 -

바쁘게 바쁘게 오아시스
다들 느끼게 해주는
오아시스 봉사단!!
오아시스 봉사단 덕분에
2012년에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신숙 > < -**

✓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아시스 화이팅!
- 김혜진 -

나눔으로 행복해지기를 돕습니다.
오아시스로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림 -

OASIS를 통해서 만난 가장 큰
보람은? 봉사활동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려 하는 사람도 보면 '행복'이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 오아시스로
둘러싼 선물이네요!!
오아시스~ 감사해요 **- 신정은 -**

강남센터 봉사단
완전 광광광!!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 이영주 -

오자 한바퀴로 돌고 돌고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시시때때로 봉사하는
오아시스!
△으로 빛나고 버티고
이름을 댈게 베풀다.
- 김민희 -

다들 기쁨으로 살아가는
봉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느라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화이팅!!
- 박현 -

나눔을, 함께 나누는
귀하는 기쁨.
작아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OASIS.
- 김유정 -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게 발전하는
오아시스가 되길 바랍니다!!
- 김유정 -

봉사활동이라는
의미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노예진 -

음지에서 인하여
양지로 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
OASIS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장수진 -

먼저 만나고
찾아오는 강남센터의
OASIS. 감사합니다!!
- 박민정 -

하기 전에 막연히 힘들지만
하고 나면 큰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것이 봉사인 것 같습니다.
서해에도 화이팅!!
- 양민정 -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오아시스,
서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고은 -

OASIS의
마음의 양에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한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수진 ~
- 최수진 -

서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리는 것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영민 -

2/18/01 시는 새삼스럽게 위대하여
2/12/01 해로 9/12/01 스라 2/12/01
2/12/01 ~~~~~ - 2/12/01 -

너무도 쉬고픈 주말 피곤한
봉사활동 하지만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미소 (1)
보람찬 강남센터
교직원들의 미소가 (1) 있기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랑해요♡오아시스♡^^
- 임동은 -



강남생태에서 익혀들어서
비룡 강강 강강에
별은 추워지니 ~
- 박은혜

남사상들을 통해
 배운다 "가게 배운다" 함께 남들처럼
 의미를 함께 해 준 오케이스
 만으로도 더욱 변신하기
 바래요 ~
 7/2 리본

다음 따따래는 시간아름답다
모리스 하이팅!!
- 송영하

나의 부족한 마음을
테레사님이 채워주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행복을
함께 하겠습니다.
- 서지혜 -

후자 살아있는 세상이
나기기에 같이 될때,
사람이 될때, 우리
"로아시스"에 따라 모든
것에 됩니다. 우리
기기에 서로에게 되찾고
"로아시스"가 되어 보아~
- 거지인 -

사라망의 모아시스
하느님 능히 사라망의
소 기쁨이 오며
큰 기쁨이 되나니.
2012년에도 모아시스와
함께하시요.
-그말-

Q10) 많이 취미가 있으면 좋을지도는 주관적
이유로써 아예와 관련 대수 있는 주제가
되는 취미들은 17년 이전까지에서 감소한다
오히려 폭넓은 분야의 같은 단인 뜻있다
17년은 없이 참여했었던 줄곧있었다.
2012년도. 다들한 한해 함께해요 ㅇ.

- 7842 -

함께 하기에
수용한 사람
남은 간서 시신을
두려워 감시했다
- 감시 -

사랑을 나누는
모아시스 ~♡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이드링!
- 홍영진 -

가장 아름다운 나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을
대접 받으며 다정다감한 자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이루고자!!
우리 가족마다 모두가 사랑받고자 합니다.
- Queen Mary -

작은 나의 사랑을 작게
배가 하수 없는 마음을
아무나 느낄 수 있게
마음의 벽을 허무는 듯
합니다.

김남준씨의 '따뜻한 사랑'
2012년에 온 세상으로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 한지영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내자는
우리 강남센터 외아시스!!
이런만큼 그 기쁨에
함께 해요 ~ ♥ 한미애!!
- 7월 24일 -

'오아시스'를 통해
세상을 보다 따뜻하게
보게 됩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쁨, 희망, 기우락

한끼! 무언가 할까? 정말,
게라가 의미있는 일을 할까?
기분이 좋아졌다.
서로 북돋는 것 하려고
다들 이야기
2020. 10. 20. 화요일 ~
- 유식민 -

친해같은 오아시스 선생님들!
 마법 자랑하고 갑니다.
 더더욱 참여하듯 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레지-

항상 오해를 풀 참에나 깨닫다
말은 귀를 느끼고 배운다.
생생들의 봉사에너지로 제 마음이
차워진 것 같아요. ^^ 
우리 와이즈 생생들 고요예요 

- 유 지연 -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호감 많은 것을 배워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마사지!
전반도 감사드려요
-리사나~

세바가 가장하고 가볼 일...
오세바가 함계재
가장한 것 같습나
더 큰 것은 보습나
-가인숙-

2012년 축출의 기운을 받아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인아시스 하이팅!
-이민희-

늘 더 많이 배우고
독어만은 분량도...
매번 똑같은 일을 한국
있게 기련을 마련해 주신
임마시스 사장님입니다. ()
-이명리

봉사하러 가는 길에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오는 행복한 시간.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2012영예도 모두다 화이팅해요.
 사랑합니다 ~. -김은성-

봉사활동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번창하세요
- 오.아.시.스
- 후원자 -

강남센터의 열풍!
모아서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 잊을 수 없습니다.^^
- 김도희 -

나를 두렵
행복해지는 치험
느껴보시길 .
- 양동원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도
크지만 우리 강삼현이
작업마로 한층 가까워지는
게기가 되는 것 같아요 ~
기쁨을 나누면 배가 든든한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인사이드 - 하영! -
- 악현 -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기득권 있는 것이니 보람...
2012 년에도 화이팅 D.D.D
-정숙주-

뜻밖의 발견!
참여했다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135-98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38, 39, 40층(역삼동 737)

TEL 02.2112.5700 FAX 02.2112.5635

<http://healthcare.snuh.org>